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81**  
SEP 29 2023

**발간년월** 2023년 9월 29일(통권 제28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 종 덕 **총괄·감수** 김 엄 지 **담당** 유 지 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6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극동	- 2023 동방경제포럼 개최 결과
	중·서부	- 크림공화국, 항만 인프라 개발 필요성 촉구
	북극	- 러, 북극지역 투자 환경 개선 및 무르만스크 물류 프로젝트 추진

주요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li> <li>- 2020년~2023년 6월 러시아 역내 화물 운송량</li> <li>- 2020년~2023년 6월 러시아 역내 운송수단별 화물 운송량</li> </ul>
-------	---



## 주요 동향



### 2023 동방경제포럼 개최 결과

그림. 2023년도 제8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연설하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



자료: <https://vostokgosplan.ru/vostochnyj-jekonomicheskij-forum-2023-itogi/>

#### ■ 2023 제8차 동방경제포럼, ‘협력, 평화, 번영으로 향하는 길’ 주제 하에 개막<sup>a)</sup>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에서 2015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온 동방경제포럼(Eastern Economic Forum, 이하 EEF)이 지난 9월 10일~13일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개최됨
- EEF는 러시아와 글로벌 투자 커뮤니티간의 관계 구축 및 파트너십 강화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 잠재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홍보하고, 극동으로의 투자 기회 및 극동 선도개발구역(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이하 TASED 혹은 TOR)에서의 사업 추진 조건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국제 플랫폼임
- 2022년 EEF에는 중국, 미얀마, 몽골, 인도, 아르메니아를 비롯 전 세계 68개국의

정부부처 수장 18인, 외교사절단 11인 등을 포함하여 총 7천 명이 참가했으며, 민간부문 기업 대표들은 약 1,700명, 진행자를 비롯한 세션 별 연사들은 950명 참가했고, 296개 총 3조 2,720억 루블 규모의 계약이 체결

- 연례 포럼으로서 개최되고 있었으나, 지난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가 불발됨
- 금년도 포럼에는 작년에도 EEF에 참석한 중국, 인도,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몽골 등으로부터 정부 대표단이 파견되었으며 ‘협력, 평화, 번영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주제 하에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국제협력, △물류 체계 변화, △극동의 10년: 어떤 결과가 있었고 어떤 것을 해야하는가?, △주권 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 △극동의 미래, △자립을 위한 기본, 교육과 육성 등 6개 세부 테마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진행됨
- 포럼 개최 주최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약 1,000개 이상의 기업에서 2,400명 가량의 러시아 국내 및 해외 기업 대표가 금번 EEF에 참석했으며, 현 대러제재 압박 상황 하에서 성공리에 진행되었다고 자평함

## ■ 푸틴 대통령, 기조연설 통해 극동이 지닌 경제적 가치 강조

- 2023 EEF의 메인 행사는 푸틴 대통령과 파니 야토투(Pany Yathotou) 라오스 부통령이 참석한 본회의 인데, 푸틴 대통령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기조연설을 진행함
- 푸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극동 연방관구는 러시아 연방 영토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넓은 지역임과 동시에 러시아 수출산업을 견인하는 다양한 산업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인데, △목재 자원, △금 매장량은 러시아 전체 영토 보유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러시아 내수시장 및 수출시장으로 보내지는 △다이아몬드·수산자원 등은 70% 가량, △티타늄과 구리는 30% 이상이 극동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으며, 전략적 항만, 철도 등이 운영되는 곳이라고 언급함
- 이어서 그는 이 같은 극동지역이 러시아 연방의 미래이자, 다극화 세계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하며, 10년 전 연방의회 연설에서 언급했던 극동지역의 활발한 발전은 21세기 전반에 걸쳐 러시아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함. 즉, 러시아 정부, 지역 당국, 러시아 대기업(국영 및 민간)의 공동 책임이자 과업이 ‘극동 개발’인 셈임
- 또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극동 지역의 투자 증가율은 39%에 달했으며, 극동 지역의 개발 속도는 러시아 영토 내 타 지역보다 빠르기 때문에 다각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언급함
- 극동 지역의 물류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 또한 언급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바이칼-아무르철도(Baikal-Amur Mainline, 이하 BAM) 및 시베리아횡단철도의 대규모 현대화, △극동 항만

및 북극항로의 개발 등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운송 연결성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했음

- 이 밖에, 대통령은 PNG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러시아 사할린(Sakhalin)~하바롭스크(Khabarovsk)~블라디보스토크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후 이를 러시아의 통합 가스 공급망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이는 즉 러시아 서부와 동부의 가스 운송망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푸틴 대통령은 기초연설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강조도 빼놓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심화되었으며, 양국이 자국 이익과 상호 협력의 수요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원자력 에너지 발전, △헬리콥터 제조분야 등 각각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분야에 대한 협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점쳤음

## ■ 2023 EEF 계기 총 100개 세션 진행, 373건의 계약 및 협정 체결

- 2023 EEF에서는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산업계 대표들 간의 협력 논의를 위한 비즈니스 대화는 물론 포럼 개최 계기 북극 의제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특히 북극 개발 문제에 대한 국가 위원회의 제2차 과학 전문가 최고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됨
- 동 회의 참석자들은 북극 과학 연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법과 러시아 연방 북극권 개발을 위한 신기술 활용 여부를 검토하였음
- 그 밖에, 물류 관련 세션에서는 러시아 북극 지역으로의 원활한 화물 운송, 상품 배송을 위한 법적 기반과 운영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 법안인 ‘북부지역 배송법(закон о северном завозе)’ 제정에 따른 일명 △북부배송 문제, △북극 지역 물류 센터 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성 문제, 그리고 △북극항로의 추가적 개발을 고려한 러시아 북극 지역 인프라 현대화 전망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음
- 그리고 2023 EEF에서는 총 373건 및 3조 8,180억 루블 규모의 계약이 체결이 되었는데, 외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및 기관간의 계약은 41개이며 (중국 기업과의 계약 26개 포함) 체결된 계약액 기준으로 △사하공화국이 가장 많은 협정을 체결한 지방정부로, 3,260억 루블 상당의 21개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다음 △아무르 주(Amur Oblast)가 1,730억 루블 규모의 18개 계약, △자바이칼 변경주(Zabaykalsky Krai)가 13개 계약 상당의 760억 루블 계약을 체결함
- 해당 계약들 중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은 러시아 국영개발공사(VEB.RF)-러시아 최대규모 은행 스베르뱅크(Sberbank)-러시아 극동북극개발부-러시아 극동북극개발공사 간 극동 연방권 구에서의 투자 프로젝트 준비·이행을 위해 체결된 1조 970억 루블 규모의 협약임

- 체결식에 참석한 아르툰 도블라토프(Artem Dovlatov) VEB.RF 부회장과 미하일 차친(Mikhail Chachin) 스베르방크 부사장에 따르면, 동 4자 계약을 통해 VEB.RF 차원에서 극동 지역 발전을 위해 선정한 △물류, △농업, △중공업, △대중교통, △관광,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사회경제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100개 프로젝트 포함 극동 잠재력을 실현하는 약 117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예정이며, ‘극동 도시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임
-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Petropavlovsk-Kamchatsky), △유즈노사할린스크(Yuzhno-Sakhalinsk), △치타(Chita), △블라고베셴스크(Blagoveshchensk) 6개 도시가 프로젝트의 이행 공간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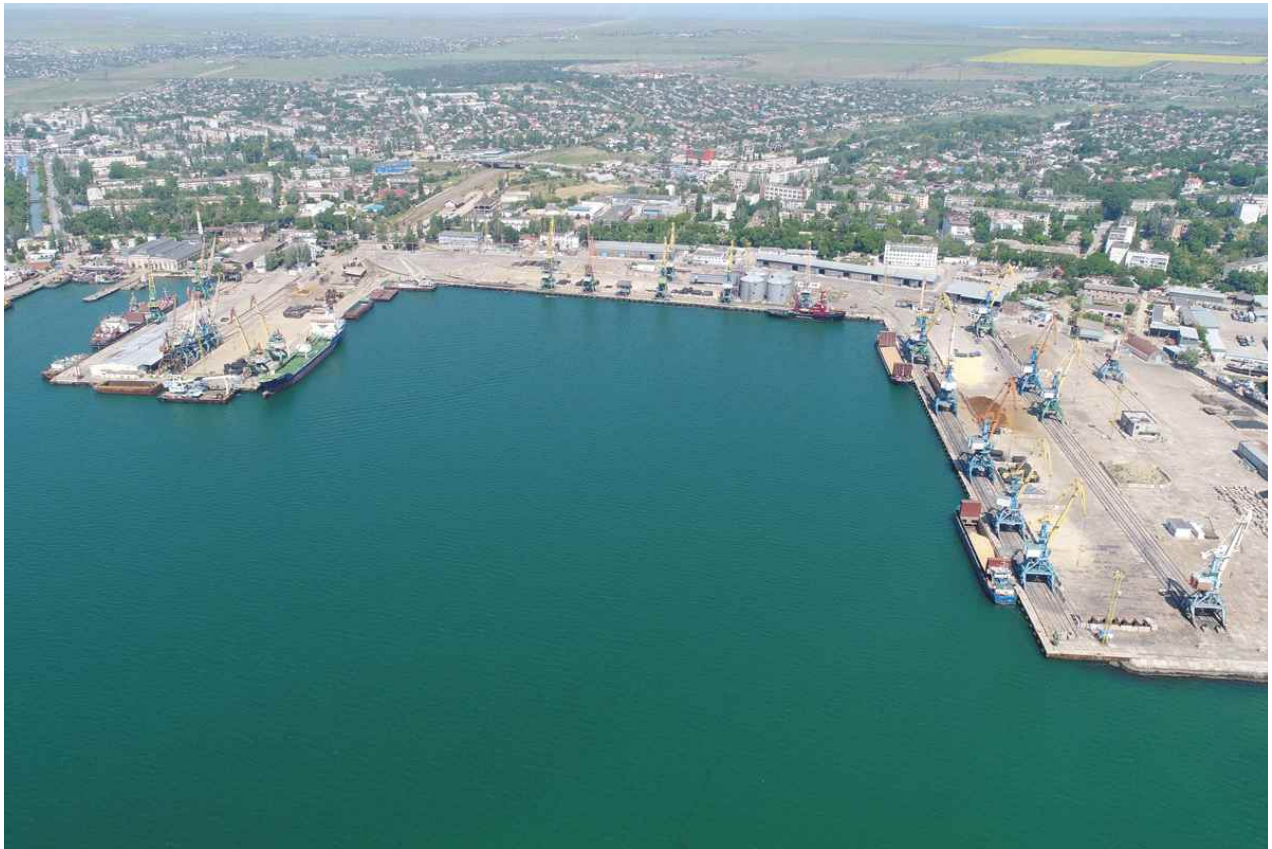
#### 참고자료

- a) <https://forumvostok.ru/news/podvedeny-itog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3/> (2023.09.27. 검색)
- b) <https://xn--90ab5f.xn--p1ai/press-tsentr/56574/> (2023.09.27. 검색)
- c) [https://www.vedomosti.ru/press\\_releases/2023/09/15/podvedeni-itog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3](https://www.vedomosti.ru/press_releases/2023/09/15/podvedeni-itogi-vostochnogo-ekonomicheskogo-foruma-2023) (2023.09.27. 검색)
- d) <https://tass.ru/info/18710061> (2023.09.27. 검색)
- e) <https://www.vedomosti.ru/business/news/2023/09/15/995379-obem-zaklyuchennih-vef> (2023.09.27. 검색)
- f) <https://forumvostok.ru/archive/2022/outcomes-of-the-eef-2022/> (2023.09.27. 검색)



# 크림공화국, 항만 인프라 개발 필요성 촉구

그림. 러시아 크림공화국 세바스토폴 항만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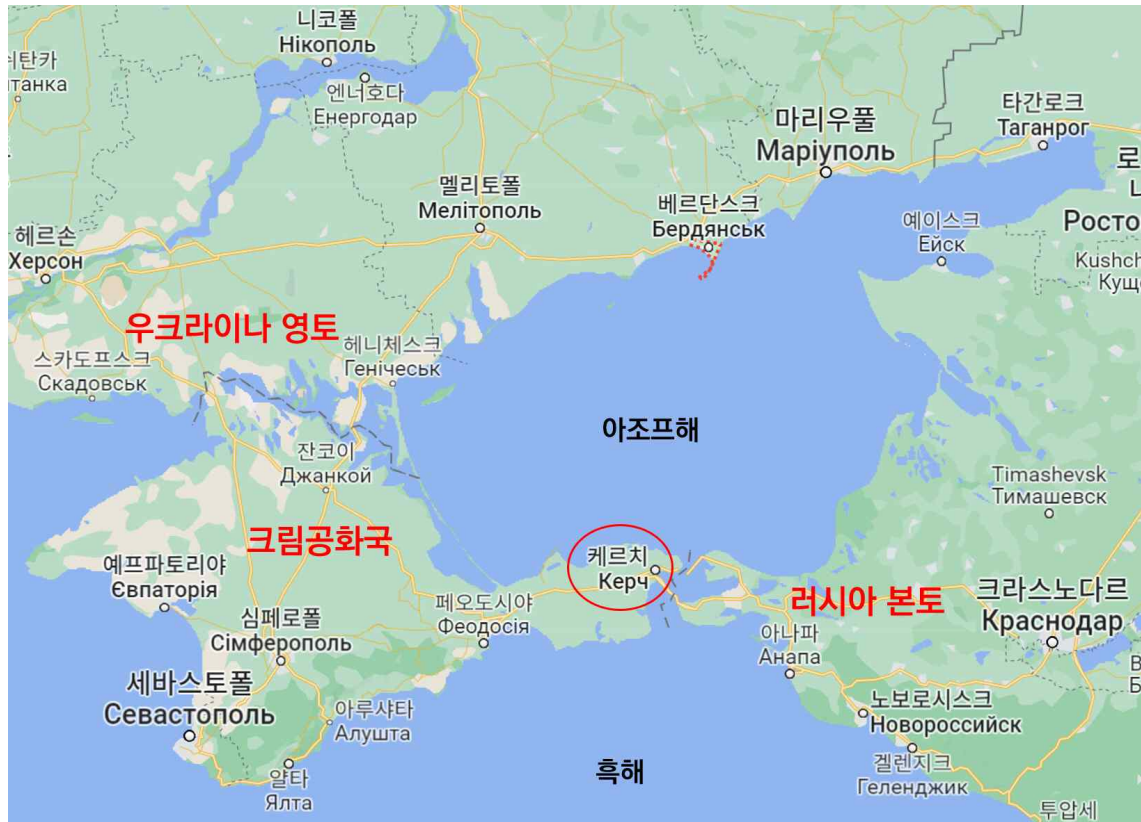
자료: <https://morvesti.ru/news/1679/105137/>

## ■ 러 크림공화국, 지역 생산품 수출에 어려움 겪어<sup>\*)</sup>

- 스베틀라나 콜로자지나야 셰르메테바(Svetlana Kolodyazhnaya-Sheremetyeva) 러시아 연방 대통령 산하 크림공화국 대표부 부대표는 지난 9월 18일~21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개최된 러시아 민간분야 조선, 해운, 항만 운영 및 개발 국제박람회인 ‘네바 2023(NEVA 2023)’에 참석하여 현재 크림 공화국은 안정적인 화물기지 및 생산 제품 수입을 원하는 파트너가 있는 상황이나 이를 수출한 선박이 모자라다고 설명함
- 셰르메테바 부대표에 따르면 2022년 크림공화국은 고품질의 곡물을 대규모로 수확하였고, 비료 및 사료 가공·생산을 위한 곡물을 대량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크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곡물들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높지만, 이 생산품을 복합 물류로인 아조프해(Azov)~우크라이나 베르단스크(Berdiansk) 루트를 이용하여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언급함
  - 크림공화국은 지리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연해있어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우크라이나 영토를 활용한 물류로를 이용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케르치(Kerch)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크림 대교를 통한 화물 운송에 의존하고 있음

그림. 크림공화국의 지리적 위치



자료: 구글 지도 참고하여 KMI 작성

## ■ 크림공화국 제품 수출을 위한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제안

- 세르메테바 부대표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크림공화국 항만 인프라로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케르치에 위치한 카미시-부룬 항만(Kerch Seaport Komysh-Burun)에서 대량의 비료 벌크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항만을 일종의 ‘비료 화물 허브’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함
- 부대표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시 크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비료 뿐만 아니라 벨라루스에서 생산되는 칼륨 비료를 카미시-부룬 항만을 통해 환적하는 프로젝트 또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며, 벨라루스측은 이같은 측면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실현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크림공화국은 바닷물 수면 가까이 서식하는 정어리, 고등어와 같은 회유성 어류 산업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서부 아프리카 대륙 국가들이 특히 이 수산물들의 어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어업 발전을 위한 투자 또한 필요한 상황임

- 셰르메테바 부대표는 언급한 산업들에 대한 프로젝트를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나, 남미 국가들과의 무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크림공화국산(産) 상품에 대한 수출이 급감할 이유는 없다며 크림공화국의 투자 잠재력을 높이 사기도 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러, 북극지역 투자 환경 개선 및 무르만스크 물류 프로젝트 추진

그림. 러시아 무르만스크 전경



자료: <https://tourism.arctic-russia.ru/articles/samy-bolshoy-v-mire-gorod-za-polyarnym-krugom/>

##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북극 지역 투자 환경 개선 지시

-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1월 1일부터 연 2%의 우대 북극 주택 담보 대출(Arctic Mortgage)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극동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상품과 유사하게 출시될 예정임. 이는 수많은 북극 지역 가정의 주거환경 조건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2025년까지 북극항로 항구의 총 수용 능력을 8,3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쇄빙선(Icebreaker)이 도입될 예정임. 또한 북극항로 해역과 예니세이강(Yenisei River) 및 콜리마강(Kolyma River)의 수심을 측량하여, 최대 15미터 흘수를 가진 선박의 운항을 위한 북극항로 지도를 제작할 계획임
- 안드레이 치비스(Andrei Chibis) 무르만스크 주지사는 콜라 반도(Kola Peninsula)가 지역내총생산(GRDP)의 산업단지 규모 측면에서 상위 20개 주요 지역에 진입하였으며, 기업이 지역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음

## ■ 무르만스크 물류 프로젝트 현황리 추진중

- 무르만스크 지역에서는 중요한 물류 투자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 2023년 말까지 비티노(Vitino) 항구와 우라-구바의 액화천연가스(Liquefied Natural Gas, LNG) 환적 단지가 가동될 예정임. 아울러 라브나(Lavna) 항 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완공 시 2030년까지 8천만 톤의 물자를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상업항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 이 외 기타 주요 프로젝트로는 △항구로의 철도 접근성 개선 작업, △볼호프스트로이(Volkhovstroy)-무르만스크(Murmansk) 노선의 운송 능력 증대, △‘북극 LNG’ 프로젝트 중 660만 톤 용량의 LNG를 액화하기 위한 기술 라인(Technological Line)의 해상 운송 프로젝트 등이 있음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

### 참고자료

- a) <https://murmansk.mk.ru/social/2023/09/26/arkticheskaya-ipoteka-i-kompleks-spg-o-vazhnykh-investproektakh-v-murmanskoy-oblasti.html>(2023. 9. 26. 검색)
- b) <https://ru.arctic.ru/economics/20230821/1030217.html?ysclid=ln373x4cwr226923041> (2023. 9. 26. 검색)



## 주요 통계



표. 2023년 1~6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물동량	전년 동기 대비
극동지역	64.9	9.4%	34	6.9%	98.9	8.5%
북극해	12.1	18.7%	29	-4.9%	41.1	1%
발트해	47.4	17.9%	62.2	-0.5%	109.6	6.7%
아조프-흑해	60.2	35.6%	66.4	11.3%	126.6	21.7%
카스피해	1.6	76.2%	1.2	2.7%	2.8	31.4%
합계	186.2	20.1%	192.8	3.8%	379	11.2%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 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카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라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5월 기준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48763/\(2023. 7. 7. 검색\)](https://portnews.ru/news/348763/(2023. 7. 7. 검색))

표. 2020년~2023년 6월 러시아 역내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

	분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운송량	2020년	567,509.2	580,010.5	613,588.0	579,480.8	605,641.0	637,823.0	737,245.4	759,564.1	759,496.2	706,375.0	652,307.9	646,594.1
	2021년	543,821.8	549,086.1	615,080.0	588,678.7	637,039.2	687,272.0	761,549.4	762,800.5	745,276.9	734,333.4	704,813.7	721,620.2
	전년 대비 증감률(%)	-4.2	-5.3	0.2	1.6	5.2	7.8	3.3	0.4	-1.9	4.0	8.0	11.6
	전월 대비 증감률(%)	-15.9	1.0	12.0	-4.3	8.2	7.9	10.8	0.2	-2.3	-1.5	-4	2.4
	2022년	555,636.9	550,577.3	615,672.0	579,201.3	632,077.9	678,164.9	740,885.3	753,309.5	728,492.0	723,781.2 <sup>3)</sup>	700,038.7 <sup>3)</sup>	701,495.2 <sup>3)</sup>
	전년 대비 증감률(%)	2.2	0.3	0.1	-1.6	-0.8	-1.3	-2.7	-1.2	-2.3	-1.4	-0.7	-2.8
	전월 대비 증감률(%)	-23	-0.9	11.8	-5.9	9.1	7.3	9.2	1.7	-3.3	-0.6	-3.3	0.2
	2023년 <sup>3)</sup>	591,141.3	596,014.0	643,218.5	609,720.2	633,414.9							
	전년 대비 증감률(%)	6.4	8.3	4.5	5.3	0.2							
	전월 대비 증감률(%)	-16.2	0.8	7.9	-5.2	3.9							
산업화물 운송량	2020년	310,640.7	314,549.0	332,753.5	304,039.5	306,417.9	302,260.4	329,721.0	339,367.9	337,709.2	338,718.0	329,493.3	338,860.1
	2021년	304,340.5	295,825.0	336,610.2	324,025.6	342,514.6	346,501.7	353,630.4	353,522.2	347,324.0	351,155.5	338,860.7	346,887.4
	전년 대비 증감률(%)	-2	-6	1.2	6.6	11.8	14.6	7.3	4.2	2.8	3.7	2.8	2.4
	전월 대비 증감률(%)	-10.2	-2.8	13.8	-3.7	5.7	1.2	2.1	0.0	-1.8	1.1	-3.5	2.4
	2022년	310,521.8	299,687.6	333,240.0	315,358.7	333,932.4	336,779.3	345,565.4	346,972.7	334,711.9	344,703.6 <sup>3)</sup>	336,033.1 <sup>3)</sup>	340,444.0 <sup>3)</sup>
	전년 대비 증감률(%)	2.0	1.3	-1.0	-2.7	-2.5	-2.8	-2.3	-1.9	-3.6	-1.8	-0.8	-1.9
	전월 대비 증감률(%)	-10.5	-3.5	11.2	-5.4	5.9	0.9	2.6	0.4	-3.5	3.0	-2.5	1.3
	2023년 <sup>3)</sup>	322,874.8	318,321.2	343,089.1	319,001.4	326,344.8							

	전년 대비 증감률(%)	4.0	6.2	3.0	1.2	-2.3							
	전월 대비 증감률(%)	-6.2	-1.4	7.8	-7	2.3							
파이프 라인 수송량을 제외한 상업화물 운송량	2020년	209,551.8	219,372.0	236,313.5	215,113.1	228,394.3	228,444.7	251,549.3	257,700.8	254,995.4	250,524.5	236,376.0	234,758.1
	2021년	199,321.8	199,857.6	235,731.0	232,670.2	250,470.9	257,678.8	264,845.0	264,019.9	256,877.4	255,601.8	242,134.3	240,636.6
	전년 대비 증감률(%)	-4.9	-8.9	-0.2	8.2	9.7	12.8	5.3	2.5	0.7	2.0	2.4	2.5
	전월 대비 증감률(%)	-15.1	0.3	17.9	-1.3	7.7	2.9	2.8	-0.3	-2.7	-0.5	-5.3	-0.6
	2022년	206,223.4	205,926.8	232,022.0	228,758.7	247,399.8	254,427.4	264,476.6	266,103.3	256,458.5	259,320.1 <sup>3)</sup>	246,081.6 <sup>3)</sup>	238,945.6 <sup>3)</sup>
	전년 대비 증감률(%)	3.5	3.0	-1.6	-1.7	-1.2	-1.3	-0.1	0.8	-0.2	1.5	1.2	-0.7
	전월 대비 증감률(%)	-14.3	-0.1	12.7	-1.4	8.1	2.8	3.9	0.6	-3.6	1.1	-5.5	-2.5
	2023년 <sup>3)</sup>	220,710.8	228,027.3	249,805.5	233,453.2	244,227.1							
	전년 대비 증감률(%)	7.0	10.7	7.7	2.1	-1.3							
	전월 대비 증감률(%)	-9.1	3.3	9.6	-6.5	4.6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



표. 2020년~2023년 6월 러시아 역내 운송 수단별 화물 운송량

(단위: 천 톤)

운송 수단		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철도 (직재 화물 기준)		2020	100,295.7	99,493.2	107,099.1	100,912.3	100,586.3	97,163.7	103,805.9	108,131.7	105,293.4	109,920.7	104,818.2	107,106.7
		2021	101,227.4	96,752.4	109,442.8	107,848.9	110,947.6	107,092.0	108,122.2	109,128.3	106,511.6	110,406.0	108,086.0	108,528.4
		2022	104,219.9	97,206.1	106,793.9	102,497.8	104,740.0	100,154.9	102,184.0	103,793.9	100,957.7	107,173.1 <sup>3)</sup>	103,718.1 <sup>3)</sup>	102,916.1 <sup>3)</sup>
		2023 <sup>3)</sup>	99,413.9	97,521.0	109,358.0	105,806.7	106,950.3							
차량 운송 화물	합계	2020	361,786.6	381,410.2	405,244.6	383,623.0	411,586.1	450,419.6	536,922.8	552,163.2	554,253.6	492,837.8	444,036.6	430,397.2
		2021	334,004.6	353,223.3	400,100.3	384,111.9	420,149.2	473,292.1	546,076.3	545,704.4	529,347.9	512,955.7	489,896.9	501,650.3
		2022	343,416.5	355,487.9	403,791.3	384,496.0	426,031.3	477,220.4	536,793.0	546,992.1	530,399.8	514,358.0 <sup>3)</sup>	494,298.1 <sup>3)</sup>	492,320.9 <sup>3)</sup>
		2023 <sup>3)</sup>	385,139.3	404,606.7	435,673.3	411,477.9	429,024.6							
	상업 화물	2020	104,918.1	115,948.7	124,410.1	108,181.7	112,363.0	114,857.0	129,398.4	131,967.0	132,466.6	125,180.8	121,222.0	122,663.2
		2021	94,523.3	99,962.2	121,630.5	119,458.8	125,624.6	132,521.8	138,157.3	136,426.1	131,395.0	129,777.8	123,943.9	126,917.5
		2022	98,301.4	104,598.2	121,359.3	120,653.4	127,885.8	135,834.8	141,473.1	140,655.3	136,619.7	135,280.4 <sup>3)</sup>	130,292.5 <sup>3)</sup>	131,269.7 <sup>3)</sup>
		2023 <sup>3)</sup>	116,872.8	126,913.9	135,543.9	120,759.1	121,954.5							
해상 운송		2020	1,871.2	1,657.9	1,638.8	1,633.9	2,327.2	1,582.5	1,949.0	2,158.3	2,625.6	2,508.8	2,584.1	2,152.8
		2021	1,467.0	1,216.8	1,851.1	2,178.1	2,218.6	1,565.2	2,115.4	2,217.4	3,042.9	1,638.4	1,745.8	2,182.9
		2022	1,581.4	2,031.3	1,662.5	1,857.4	2,549.8	2,209.1	3,043.2	3,073.0	1,922.1	2,366.0 <sup>3)</sup>	2,567.0 <sup>3)</sup>	2,692.0 <sup>3)</sup>
		2023 <sup>3)</sup>	2,730.3	2,213.8	2,794.5	2,799.4	2,782.7	3,106.2						
내륙수운 <sup>1)</sup>		2020	2,386.1	2,202.3	3,064.0	4,304.4	13,028.3	14,750.6	16,304.0	15,348.5	14,505.8	12,800.3	7,624.8	2,706.3

	<b>2021</b>	2,003.8	1,825.7	2,685.8	3,064.2	11,558.8	16,381.4	16,327.8	16,125.3	15,799.8	13,645.9	8,218.6	2,859.3
	<b>2022</b>	2,005.4	1,993.4	2,172.5	3,720.0	12,192.6	16,193.7	17,738.2	18,538.0	16,916.6	14,457.5 <sup>3)</sup>	8,459.0 <sup>3)</sup>	2,016.7 <sup>3)</sup>
	<b>2023<sup>3)</sup></b>	1,661.9	1,344.4	2,071.5	4,068.9	12,180.8							
항공 <sup>2)</sup>	<b>2020</b>	80.7	69.9	101.5	80.8	89.5	90.9	92.0	95.3	104.0	113.9	126.9	129.1
	<b>2021</b>	100.3	100.5	120.8	120.2	121.3	118.4	122.3	122.8	128.1	133.7	140.0	148.5
	<b>2022</b>	115.3	97.8	33.8	30.1	31.6	34.9	38.1	43.1	42.4	43.1 <sup>3)</sup>	45.0 <sup>3)</sup>	51.1 <sup>3)</sup>
	<b>2023<sup>3)</sup></b>	31.9	34.2	37.6	35.8	35.3							
파이프라인 <sup>4)</sup>	<b>2020</b>	101,088.9	95,177.0	96,440.0	88,926.4	78,023.6	73,815.7	78,171.7	81,667.1	82,713.8	88,193.5	93,117.3	104,102.0
	<b>2021</b>	105,018.7	95,967.4	100,879.2	91,355.4	92,043.7	88,822.9	88,785.4	89,502.3	90,446.6	95,553.7	96,726.4	106,250.8
	<b>2022</b>	104,298.4	92,025.3	102,953.5	86,600.0	86,532.6	82,351.9	81,088.8	80,869.4	78,253.4	85,383.5 <sup>3)</sup>	90,951.5 <sup>3)</sup>	10,1498.4 <sup>3)</sup>
	<b>2023<sup>3)</sup></b>	102,164.0	90,293.9	93,283.6	85,548.2	82,117.7							

1) 내륙수운~해상 연결 운송과 같은 선박을 활용한 복합운송 포함

2) 러시아 연방 항공운송청(Federal Air Transport Agency) 자료 기반 수치

3)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및 헤르손 주에 대한 통계 수치 제외

4) 러시아 연방 통계청 원자료에서 세부 항목에 대한 통계 정보를 비공개로 전환함에 따라, 총합계 수치만 공개함

정다현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dhj82@kmi.re.kr/051-797-4766)

## 참고자료

a) [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https://rosstat.gov.ru/statistics/transport(2023. 7. 7. 검색))